

영적원리 X XⅢ. 수치심을 이기는 복음

1.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시험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질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의 성격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인간을 향한 시험이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신성이신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다.

이것은 인간이 넘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마귀의 시험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시험은 ‘정체성’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시험이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존재’를 떠날 때 발생한다. 존재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존재는 내가 하고있는 행동에 대한 방향성, 의미, 가치 등 모든 것이다.

결국 ‘존재’ 위에 건설하지 않은 모든 집은 무너지게 된다.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며 가장 화려했던 최고의 배 타이타닉 처럼 예상하지 못한 빙하와 충돌하여 침몰한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그 당시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배였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단순한 배의 침몰이 아니다. 다시 인간이 스스로의 장벽과 한계앞에 서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4:1-11]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2. 선악과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 스스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의 결과이다.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시다. 통제라는 말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근원되신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이 모르는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와 같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은 그래서 거짓이다. 인간이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가설이 증명된 적이 없다. 어떤 이론, 이념, 기술, 문명,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그 증거가 변화하고 있는 역사이다.

3. 증명하려는 인간

정체성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의 문제이다

1) 증명

‘a는 b이다’ 라는 사실의 합리적 이유와 근거위에 존재한다. 증명해야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고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명해야 인정받고,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2) 모든 것을 ‘감정’하는 세상

‘감정, 감별’의 세상이다. 좋은 감정을 받아야 ‘인정’받게 된다. 인정 받아야 성공할 수 있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은 인정받는 존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 그 보상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3) 정체성은 발견의 영역이다.

‘a는 b 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은 이미 있던 것을 아는 것이다. 발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발견하면 알게 된다. ‘개발’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금을 발견했다. 금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러나 발견한 금은 가공하고 세공하는 시간을 거쳐야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발견과 개발은 별개의 문제이다. 발견 자체가 중요하다. 나에게 좋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된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4. 예수님의 설명 - 거듭남 (니고데모)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5. 증명을 넘어선 신앙 - 여정의 중요성

* I am~ 의 회복

신앙이 있다는 사실은 ‘I am~’ 을 찾는 일이다. 나를 증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장하며 알아가듯이, 신앙 또한 ‘여정’ 속에 알게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यो, 진리, 생명이다.”

* 누구의 인정이 중요한가?

이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아야 한다. 인정에 목마른 사회는 ‘인정’받으면 그것이 성공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대가 지불의 인정은 상관없지만, 이 세상의 악한구조에 의한 인정 자체(부패, 부정의 구조)가 악하다. 정의, 공의가 없다. 불의가 정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모세를 향한 부르심 - 떨기나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 한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하나님께서 증명해주신다. (출애굽기 3장)

* 모든 것을 알고 증명하려 하지마라.

[고린도전서 13:9-10]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6.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는 나의 존재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여정이다. 퍼즐과 같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가다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일단 가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일단 가보니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 순간, 그 시간, 상황을 받아 들여보라. 보이는 것이 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한 틀이 생겼다는 것이다.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즉흥성’의 힘이다. (spontaneous - 우연의 힘)

‘우연’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우연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무엇인가 알지 못했지만, 하다보니 저절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7. 결국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이다.

그 때 인간은 진짜 자유하게 된다. 막혔던 상황이 열리고, 묶었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알게된다. 문제를 바라보았던 편협한 나의 시각에서 나오게 된다. 더 넓어지고 더 커진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중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8. 존재인 척 하지말고, 존재가 되라.

종인 척 하지 말고, 종이 되라. 제자인 척 하지말고, 제자가 되라.